

# 해기직업 은퇴 생활자의 인식도 연구

김 영 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연구처

## A Study on the Life Recognition of Retired Seafarers

Young-Mo Kim\*

\*Division of Training and Research,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608-080,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해기직업 생활자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해기직업 종사자에게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17명의 다양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연령은 육상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빠르며, 이는 해상직업 생활의 이가정성, 이사회성으로 인해 조기 하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학력과 해기직업 종사기간과는 무관하며 그동안 얼마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육상근무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직업생활 당시 희망과는 무관하게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해기사, 은퇴, 직업만족, 생활비, 인식도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form seafarers to prepare their retired life by researching the life style of ex-seafarers. These information will also help seafarer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government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217 retirees who have several educational background responded the research questionnair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seafarers' retired ages are faster than shore employee due to the isolation from their families and society. Second,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seafarers depends on the level of life expenses regardless the educational background or length of sea life. Third, the level of retired life expenses of shore based, higher education background or short sea-life seafarers is higher than the sea based, lower education background or long sea-life seafarers. Forth, life style of retired seafarers is staying at home regardless their expectation during career period. Finally special seafarers' social security is needed and education to the ex-seafarers will help re-enter for sea-life.

**Key words** : seafarer, retirement, job satisfaction, life expense, recognition

### 1. 서 론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생애경로를 살펴보면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해양계 전문교육기관에 입학하여 해기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졸업하여 해상생활을 시작하거나, 부원선원으로 승선하다가 해기면허를 취득한 후 해기사로 일정 기간 승선생활을 한 후, 육상의 유관 해기직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은퇴하거나 계속 해상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시기가 언제쯤인가 하는 것은 개인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지나 조세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남성이 63.6세, 여성이 55.4세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2008). 최근 국내 보험업계가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저하, 조기퇴직, 부모보양 의식의 약화로 노후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하는 은퇴설계에 대해 각종 자료제공 및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자문을 하고 있으나, 체계화된 은퇴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특수

직업분야에 속하는 해기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은퇴를 하고 은퇴 후에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학제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도 은퇴 선원의 실태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고, 선진 해운국이었던 영국이 해사단체들로부터 형성된 각종 기금으로 은퇴 선원들에 대한 의료지원, 거주시설 지원 및 은퇴선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해상생활의 유형과 은퇴 후의 생활은 해기직업에 진출하는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해양계 대학을 졸업한 해기사는 보다 안정된 직업생활을 한 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해상생활을 하다가 은퇴할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러나 출신이 어떠한든 향후 해사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경험 있는 해기인력은 해기사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Glen et. al., 2003). 그러므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이 향후 자신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전망을 할

\* 중신회원, ymkim@seaman.or.kr 051)620-5763

수 있으면, 현재의 직업생활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해상직업의 매력화를 통해 필요한 해상산업체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80.5세이고 남자 평균기대수명이 77세로 10년 전보다 4.9세가 늘어(통계청, 2010)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한 해기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실태를 분석·규명함으로써 해기사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해기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2. 은퇴자 실태 조사

### 2.1 표본 선정

우리나라 전체 해기직업 종사자의 출신경로별로 은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다. 그러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발간한 해기직업자의 학력분포를 참고할 경우 은퇴자의 분포를 추정할 수 있다.

Table 1 No. of seafarers by educational background

출신	해 양 계					일반 계	합계
	계	대학	전문	고교	단기		
인원	7,063	3,510	1,171	2,096	286	11,404	18,467
비율	38.9%	19.0%	6.3%	11.4%	1.5%	61.8%	100%

자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선원선박통계연보, 2010.

Table 1은 현직 해기사의 해양계 출신자와 일반학교 출신자의 분포를 보여주며, 이러한 분포가 은퇴자의 분포와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대략 은퇴자 수를 가능한 한 해양계 대학, 전문대학, 해양계 고등학교 및 일반계 출신비율을 참고하여 표본 수를 선정하였다. 표본은 대학, 전문대학, 고교졸업자는 각 교육기관 동창회 명부에서, 일반출신 은퇴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이수자 중에서 연령대별로 추출하였다.

217명의 유효 표본 응답자를 주요 인구통계적 요소별로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Demographics of samples

항 목	구분	내 용				
은퇴전 근무위치	항목	육상	해상	무응답		
	비율	21.2%	77.0%	1.8%		
최종 학력	항목	대학	전문대	해양고	일반	
	비율	12.4%	26.7%	14.7%	46.1%	
연령 분포	항목	60세이하	61-65세	66-70세	71세이상	
	비율	13.1%	20.7%	42.7%	23.5%	
은퇴 연령	항목	55세이하	56-60세	61-65세	66세이상	
	비율	21.7%	23.5%	38.6%	16.3%	
해기 전공	항목	항해	기관	기타		
	비율	48.4%	47.0%	4.6%		
생활비 수준	항목	4백만이상	3-4백만	2-3백만	1-2백만	백만미만
	비율	3.3%	10.3%	28.5%	40.2%	17.8%

### 2.2 조사 내용

조사항목은 6개 조사분야와 인구통계적 분야로 구성하였다. 6개 조사분야는 은퇴 후 생활, 은퇴 후 생활의 애로사항, 해기직업의 만족도, 경제력, 필요지식과 자격, 친교관계로 구성되고 모두 24개 문항과 5개 보조문항을 마련하였다. 인구통계적 요소로는 은퇴 전 근무부서의 해기직업 관련 여부, 은퇴 전 근무위치, 최종 학력, 연령, 은퇴시 연령, 총 해상생활 경력, 총 육상근무 경력, 해기 전공, 은퇴시 근무 직책, 은퇴시 면허급수, 배우자 생존여부, 독거 여부, 월 생활비 수준, 주택 형태, 주택 소유형태, 건강허락시 앞으로 희망하는 수명 등 15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 2.3 조사 및 분석방법

조사방법은 각 교육기관 동창회 협조를 받아 동창회를 방문한 은퇴 해기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은퇴자들은 준비한 설문서를 내용으로 직접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에 적용된 통계적 기법으로는 각 조사항목별 빈도분석과 집단적 유의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자료의 처리는 사회과학의 통계용 패키지인 SPCC/PC+(ver. 10.0)를 이용하였다.

## 3. 은퇴자 인식도 분석

### 3.1 은퇴 시 인적 상황

은퇴 시기는 가장 빠른 사람이 25세에 은퇴하였고, 가장 늦은 사람은 75세였으며, 평균적인 은퇴 연령은 59.5세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초반인 61세에서 65세가 가장 많았고(38.6%), 그 다음으로는 50대 후반인 56세에서 60세 사이였으며(23.5%), 그 외의 연령대로는 66세 이상보다 오히려 55세 이하의 은퇴연령대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은퇴자의 해상근무 기간은 0~55년 사이였으며, 평균은 30.7년으로 나타났고, 육상근무 기간은 1~53년 사이고, 평균은 13.0년으로 조사되었다.

은퇴 시 면허급수는 1급 면허 소지자는 39.9%, 2급 면허 소지자는 20.7%, 3급 면허 소지자는 18.1%, 4급 이하 면허 소지자는 21.2%로 나타났으며, 최종 하선시 직책은 선장과 기관장이 71%를 차지하였다.

### 3.2 은퇴후 생활

조사 대상자 217명 중 10%는 은퇴 후에도 직업생활을 하고 있으며, 은퇴를 할 시점에서의 은퇴이유는 노령이 2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년(명퇴포함)이 21.8%였으며, 개인사업을 위해 하선한 사람도 16.7%나 되었다.

은퇴후 생활이 해기직업과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6.5%가 관련이 있거나 약간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3.5%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약 반 정도는 해기

직업 활동이 은퇴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로 은퇴 후 여가활동이 대부분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응답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생활이 원래 은퇴 후의 생활계획에 맞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64.9%가 계획된 생활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기직업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계획된 은퇴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획된 은퇴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55.3%)을 지적하고 있어 은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은퇴 전 은퇴자금 확보를 들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 조사에서 Fig.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만족과 만족이 전체의 44.3%를 차지하여 불만족/매우 불만족(19.8%)보다 높게 나타나, 해기직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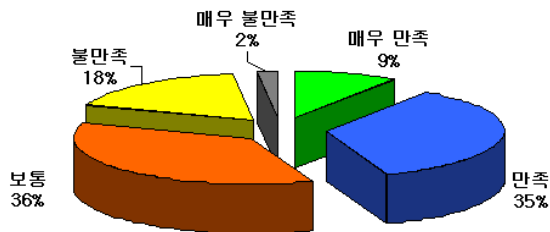


Fig. 1 Satisfaction of retired life

### 3.3 은퇴후 생활의 애로사항

해상직업생활 후 은퇴 후에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직업없이 무료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32.4%)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육상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곤란(29.6%)과 경제적 어려움(28.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족간 생활이나 건강 등의 기타 이유가 9.3%로 응답하였다.

해기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0.9%가 정부가 해기직업 종사자들에 대해 별도의 연금제도 등을 운영하여 해기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응답자(39.4%)가 해기전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8%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은퇴 후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노력으로 인한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의료보장 정책지원(7.3%)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부 은퇴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이는 응답을 하지 않은 다수(질문 대상자의 36.9%)의 입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3.4 해기직업의 만족도

과거 해기직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68.2%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7.9%가 불만

족 내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고 보통이 23.8%였다.

해기직업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자녀들을 해기직업에 종사시킬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은 21.4%가 적극 권유 또는 권유를, 42.4%는 만류 내지 적극 만류로 응답하고, 보통이 36.3%였다.

현재의 은퇴생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느끼고 있으나, 자녀의 해기직업 종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앞서, 본인은 해기직업생활을 하였으나 동일한 직업생활을 2세가 따르는 것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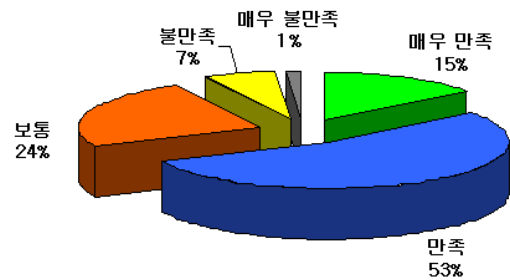


Fig. 2 Satisfaction of ex-seafarers' life

### 3.5 경제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비는 1~2백만원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2%), 그 다음으로는 2~3백만원 사이(28.5%)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생활비 수준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3.4%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20.1%가 불만족 내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하고 보통이 36.4%로 응답해, 해기직업 종사자들은 현재의 은퇴 후 생활비 수준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복수로 응답을 요청한 결과, 개인 근로소득이 3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축금이나 이자가 27%, 국민연금이 2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자녀의 지원도 일부 받으나(11.1%) 개인연금 가입에 의한 혜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은 1순위로 생활비를(77.7%), 2순위로 의료비를 들었으며(33.7%), 1, 2순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출항목을 순서별로 나타내면 생활비 > 의료비 > 문화오락비 > 경조사비 > 교육비 > 교통통신비 순이었다.

생활비에 대한 자녀의 도움 정도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가 77.4%, 부분적으로 의존한다가 18.4%,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4.2%로 나타나, 해기직업 종사자들은 3/4이 스스로의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노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해 해기직업 생활이 은퇴 후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59.2%, 도움 안됨과 전혀 도움안됨이 18.4%로 응답하고 보

통이 22.5 %로 나타나 해기직업 생활이 은퇴 후 경제적 준비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부수입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가 38.5 %, 있다가 33.3 %, 간혹 있다가 28.2 %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부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주된 부수입원이 관련 면허로서 임시직, 계약직, 촉탁 등의 방식으로 승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자영업을 통한 부수입 또는 이자나 임대수입 등을 들 수 있다.

### 3.6 필요 지식과 자격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40.6 %가 다양한 지식을 제시한 반면, 과반수가 넘는 59.4 %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필요 지식으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과 지식(예를 들면, 영어나 대인관계 지식 또는 사회교양지식 등)을 꼽았으며(37.5 %),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대한 지식을 갖출 것을 희망(31.8 %)하였다. 그 외에도 선박전공관련 지식(12.5 %)과 경제경영 지식 및 채용업 지식이 각각 9.1 %씩 나타났다.

은퇴 후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85.7 %)은 무응답이거나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으며, 극소수만이 육상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자격증(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였다.

해기직업 경력이 현재의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39.4 %, 도움 안됨과 전혀 도움안됨이 34.3 %로 비슷한 응답을 보이고 있으며, 보통이 26.4 %였다.

해상생활이나 육상생활을 끝으로 은퇴하는 것이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육상근무 후 은퇴자는 매우 도움 또는 도움이 35 %로 나타났으나, 해상근무 후 은퇴자는 동일 질문에 51.9 %나 되어 해상근무 후 은퇴자가 육상근무자에 비해 은퇴 후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도움이 된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해상근무 후 은퇴 응답자의 49.4 %는 경제적 이점을 들었으며, 그 다음 36.0 %가 장기 승선이 가능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나 육상근무 후 은퇴자 응답자는 해기기술이 육상의 관련직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50.9 %였으며, 경제적 이유는 21.1 %에 불과하였다.

### 3.7 친교 관계

은퇴 후 가장 많이 어울리는 사람은 학교친구가 32.9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 동료가 27.8 %, 그리고 가족이 21.9 %, 이웃, 친척 순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후로 가족 친교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61.7 %로 대부분이었으며, 좋게 변화가 29.1 %, 나쁘게 변화된 것이 9.2 %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그 원인으로 가족이 불편한 점을 거론했었는데, 이는 오랜 격리생활 후 가족사회에 합

류로 인한 부적응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3.8 은퇴생활 유형

가족과의 동거 여부는 응답자의 84.4 %가 부인과만 같이 생활하고 있으며, 6.1 %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혼자서 살고있는 사람도 9.4 %나 되었다.

주택 소유형태는 소유가 82.7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가 14.5 %, 무주택이 2.8 %였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5.9 %였고 단독주택은 30.9 % 기타 3.2 %였다.

건강이 허락할 경우 앞으로 희망하는 수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5 %가 80세를, 17.3 %가 85세를, 16.8 %가 90세를 언급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희망수명은 87세였다.

## 4. 은퇴생활 분석 시사점

### 4.1 은퇴 시기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은퇴 연령은 평균 59.5세로 조사되었고, 육상근무 후 은퇴연령은 평균 56.8세였으며, 해상근무 후 은퇴는 60.5세로서 육상보다 해상근무자의 은퇴시기가 평균 3.7세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1세~65세가 가장 많았으며, 66세 이상보다는 60세 이하에서 조기 은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해양계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은퇴연령은 56.7세로 조사되었으나, 기타 학력출신들의 평균 은퇴연령은 4.3세가 늦은 61.0세로 나타나 고학력자일수록 은퇴연령이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 은퇴연령 63.6세에 비해 해상근무자의 은퇴시기가 빠른 것은 직업장소가 바다이고,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조기에 직업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은퇴자들의 총 해상경력 평균 30.7년이었으며, 육상근무 경력은 평균 13.0세로 나타나, 대부분 장기간의 해상경력으로 짧은 육상경력으로 과정을 거쳐 은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은퇴 동기는 노령과 정년과 같은 타의에 의한 은퇴와 개인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하선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기직업이 해운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역에서 은퇴를 하였으나, 2008~2009년 사이 일시적 해운경기의 활황으로 해기사의 일시적 부족현상으로 인해 은퇴 해기사들이 다시 해상직업생활을 재개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해기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언제라도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기직업의 은퇴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해기직업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4.2 해기직업과 은퇴생활

해기사의 은퇴 후 생활과 해기직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53.5 %를 차지하여, 연관이 있거나 약간 있는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은퇴 생활이 원래 계획하였던

은퇴 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대충 그렇다가 64.9 %를 차지하고 있어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은 해기직업 종사시절에 생각하였던 유관 분야의 활동으로 대체로 계획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수적인 소일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료함이 은퇴 생활의 가장 힘든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를 집단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F-probability of satisfaction of retired life

항목	근무위치	학 력	은퇴연령	생활비
유의확률	0.159	0.157	0.729	0.000***

\*\*\* p,<0.01

분석결과,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은퇴 전 육상근무를 하였는지 해상근무를 하였는지 무관하고, 학력간 차이도 무관하며, 은퇴연령대에 따라서도 무관하게 나타났으나, 현재의 생활비 수준에 대해서는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생활비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은퇴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생활비 수준이 낮을 경우 현 은퇴생활에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과거 출신과 해기생활 기간과는 무관하며 해기직업 종사기간동안 얼마만큼이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4.3 경제력 확보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은 1~2백만원대가 가장 많고(40.2 %), 그 다음으로 2~3백만원대였으며, 1백만원 이하로 17.8 %나 되었다. 중간치 값을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평균 생활비를 계산한 결과 198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2인기준 최저 생계비인 85만 9천원(보건복지가족부, 2010)과 노령연금 1인 월 평균지급액 75만 3천원(국민연금공단, 2010)에 비해 높고, 우리나라 7대도시 평균 예상생활비인 197만원(주, 2007)과는 비슷하게 나타나 해기직업 은퇴자의 생활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2010년 조사한 전국 2,000가구 월 평균 노후자금 213만원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풍요로운 생활비인 408만원(삼성생명 PF센터, 2010)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생활비 수준을 집단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probability of retired living expenses level

항목	근무위치	학 력	은퇴연령	해상경력	육상경력
유의확률	0.000***	0.000***	0.059*	0.000***	0.058*

\* p,<0.1 \*\*\* p,<0.01

분석결과,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은 은퇴 전 육상근무를 하였는지 해상근무를 하였는지와, 출신 학력 및 해상경력의 장단과 유의확률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연령의 고저와 육상근무 기간의 장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육상근무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해양계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일정 기간 해상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육상근무를 한 다음 은퇴를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생활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김 등, 2009) 결과, 현재 육상근무 중인 해기사가 과거 하선시기가 매우 빨랐던 집단(3년 이내)과 매우 늦었던 집단(11년 이상)은 만족도가 낮은 반면, 중간부근(6~10년) 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런 현상은 2세를 해상생활에 종사시킬 것인지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가 생활비 과소에 크게 좌우되는 점과 적정 해상생활 기간이 해기직업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적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기간의 해상근무를 통한 초기 재정확보와 함께, 이후 하선을 통한 육상근무 과정에서 적절한 재무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은퇴계획으로 판단된다.

### 4.4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자격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는 2009년도 해기직업 생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많은 해기직업 종사자들이 은퇴 전에는 여행과 전원생활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실제 은퇴 후 생활은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응답자의 59.4 %가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85.7 %는 특별한 자격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육상 일반근로자들의 은퇴 후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히 해상직업 종사자들은 육상의 적응시간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은퇴 후 취미생활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준비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기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은퇴 후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4.5 정책적 지원제도 마련

비록 조사 대상자의 1/3 가까이가 정부의 은퇴자 지원정책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은퇴자들이 선원연금제도나 보험제도와 같은 선원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고액 세금납부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기전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은 강제규정으로 선원에 대한 사회보장 보호에 있어서 회원국은 자국의 사회보장법률이 적용되는 선원과 자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까지의 부양가족이 육상근로자가 향유하는 사회보장 보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해

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될 것을 요구(규정 제A4.5조 제3항)하고 있다(ILO, 2006). 현재 국내법령상 선원재해보상은 육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규정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칭 선원사회 재해보상연금 보험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국토해양부, 2008)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해기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은퇴 후의 사회보장제도도 추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은퇴 해기사들이 재승선의 기회를 용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는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재승선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우리나라는 해방 후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당시의 해운환경과 한국동란에 따른 경제적 괴멸을 딛고 65년의 짧은 기간 안에 세계 6위의 지배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우수한 해기인력의 활동이 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 경제발전에서 기여한 해기직업 종사자들이 은퇴 후의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나 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형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통해 해기직업 종사자들에게 은퇴 후의 생활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연령은 육상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빠르며, 이는 해상직업 생활의 이가정성, 이사회성으로 인해 조기 하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은퇴자도 해운시황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둘째,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학력과 해기직업 종사기간과는 무관하며 그 동안 얼마만큼의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육상근무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 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은퇴 후 적절한 경제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간기간의 해상근무를 통한 초기 재정확보와 함께 이후 하선을 통한 육상근무 과정에서 적절한 재무적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업경로로 판단된다.

넷째,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직업생활 당시 희망과는 무관하게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료한 노후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은퇴 후 취미생활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준비와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해기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은퇴 후 생활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은퇴자의 다수가 재취업을 갈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재승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취업정보 제공과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을 연구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육상근무 은퇴자의 표본수 한계로 인해 분석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은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의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문 헌

- [1] 국민연금공단(2010), 「노령연금 월 평균지급액」
- [2] 국토해양부(2008), 「국제노동기구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내수용에 관한 세부연구 최종보고서」, p.366.
- [3] 김영모 등(2009), “해기직업 경로상의 행동요인 영향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5권 4호, pp.369-374.
- [4]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제2010-65호
- [5] 삼성생명PF센터(2010), 「아름다운노후를완성하는 은퇴설계」, p.132.
- [6] 주소현(2007), “근로소득가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충분성”, 삼성금융연구소, <http://blog.naver.com/ceover>
- [7] 통계청(2010), 「2009년 생명표」
- [8] 한국조세연구원(2007), <http://www.kipf.re.kr>
- [9] Glen D., Dowden G. and McConville J.(2003), 「United Kingdom Seafarers Analysis 2002」, London Metropolitan University, pp.8-9.
- [10] ILO(2006),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원고접수일 : 2010년 1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월 13일  
 원고채택일 : 2011년 1월 14일